

2012 WCC 총회 대비, 제주지역 녹색산업 발전 방향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윤

WCC 범도민지원위원회 녹색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WCC 총회를 제주지역의 녹색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문제 제기

제주는 지난 10여년 동안에 UNESCO 등 권위있는 국제기구로부터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02년 한라산국립공원, 효돈천·영천, 그리고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문섬, 범섬, 섯섬 및 주변 일대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¹⁾으로 지정되었다. 한라산과 하천 그리고 바다를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07년에는 한라산국립공원,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어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새롭게 조명받는 계기가 되었다.

2009년에는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의 지질명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1) 생물권보전지역은 생물의 지리학적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이 있는 지역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공공기관, 지역공동체,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곳을 지칭한다(신동일, 유네스코 3관왕의 의미와 향후 과제, JDI FOCUS 106호, 2010, 11, 제주발전연구원).

로부터 세계지질공원²⁾으로 인정을 받았다. 제주도 전역이 국제기구로부터 인정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람사르 습지 목록에는 물영아리(2006), 물장오리(2008), 1100고지 고산 습지(2009), 동백동산습지(2011) 등 4곳이 등재되었다. 제주처럼 국제기구 등이 인정하는 다양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도 그 예를 찾기 힘들다.

지난 10년 동안 제주의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토대로 자연환경보전 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회의인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2012)를 개최하게 된다.

WCC 총회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160개 회원국의 정부기관,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를 비롯하여 학계 전문가 등 1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 직접적인 관광수입(1천억원 이상) 외에도, 개최 국가 및 지역의 위상 제고 등 간접적인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WCC 총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지원특별법 제정 등 국가차원의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입장에서 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WCC 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여, 제주지역의 자연환경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로 활용함으로써 제주관광, 제주 환경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WCC 총회의 성공적 개최뿐만

-
- 2) 제주 세계지질공원은 제주도 섬 전체가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그 중 한라산을 비롯한 9곳이 대표적인 지질명소(한라산, 만장굴, 성산일출봉, 천지연폭포, 서귀포 패류화석층, 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산방산, 용머리해안, 수월봉 화산쇄설층 등 9곳)로 지정하고 있다.
 - 3) 제주특별자치도는 WCC 총회의 성공개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과 함께 미래 제주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자율적인 분위기 확산과 조직적인 WCC 총회 준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역량 결집을 도모하기 위하여 WCC 범도민지원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12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① 회의기획 분과 : 총회의제 설정 및 총회 이후 환경수도 조성 등
 - ② 친환경교육 분과 : 친환경 도민교육
 - ③ 클린제주 분과 : 청결 및 환경정비 추진
 - ④ 생태관광 분과 : 관광환경 개선, 관광 종사자 친절교육 등
 - ⑤ 녹색교통 분과 : 교통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교통질서 봉사
 - ⑥ 여성·청소년 분과 : 생활 환경보전운동 실천프로그램 운영
 - ⑦ 자원봉사 분과 : 자원봉사 운동의 대대적 확산 등
 - ⑧ 이벤트지원 분과 : 축제이벤트 등 WCC연계 행사 지원
 - ⑨ 친환경숙박 분과 : 숙박, 위생접객업소 수준 향상
 - ⑩ 도시녹화 분과 : 시가지 및 공원 정비, 꽃길 조성 등
 - ⑪ 녹색경제 분과 : 지역 친환경상품 개발 및 투자유치 홍보
 - ⑫ 홍보 분과 : WCC 홍보활동 및 기초질서 확산 등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하기 위하여 범도민지원위원회³⁾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본고는 WCC 범도민지원위원회의 12개 분과중 녹색경제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계기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산업 발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완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리하였음을 밝힌다.

- ① WCC 총회 참가자가 진단하는 제주 환경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 ② 제주도민의 환경의식과 녹색소비 활동 능력을 높인다
- ③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비전인 세계환경수도 조성계획을 인정받는다.

앞으로, 제주의 정책방향은 환경친화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제주의 청정 환경, 물, 친환경농수축산물 등이 제주의 경쟁력이며, 환경이 곧 자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WCC 총회를 계기로 제주의 정책방향을 환경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II. 제주의 환경브랜드와 추진 실태

1. 제주의 환경 브랜드⁴⁾

● 국제적인 보호지역과 환경브랜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2002),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2007),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2010)을 비롯하여 랍사르 습지 등록(물영아리: 2006, 물장오리: 2008, 1100고지 고산 습지: 2009, 동백동산습지: 2011) 등이다. 하나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유네스코가 운영하는 자연과학분야 보전 프로그램인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소위 UNESCO Triple Crown을 모두 인정(인증)받고 있는 곳은 제주가 유일하다고 한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⁵⁾은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22개 국립공원중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유일한 국립공원이다. 따라서 한라산국립공원이 갖는 국제적인 브랜드는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전략이 이룬 성과라고 할 것이다.

4) 본 원고에서는 제주의 환경특성을 활용한 국가단위 또는 지역단위 정책사업의 추진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정책을 환경 브랜드라는 의미로 활용하고 있음.

5) 한라산국립공원의 총면적은 153,332km²(국유지 148,621km²(97.1%), 공유지 1,224km²(0.8%), 사유지 3,102km²(2.0%), 사찰지 0.165km²(0.1%))으로 제주도 전체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어, 제주의 자연환경자산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제주의 비전 설정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핵심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음.

● 기후변화시범도

2007년 7월 11일 환경부와 기후변화 협약 체결시 기후변화 시범도로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정책과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하였다. 이미 2008년에 기후변화 대응로드맵 수립 및 실천전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2020년 온실가스 감축량을 BAU 기준 41%까지 감축 등을 목표로 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분야별 시범사업 발굴·추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영향예측 및 적응모델 개발(1, 2단계 연구사업 완료), 기후변화 관련 조례 제정 등 법적 추진기반 마련 등을 실천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 환경교육시범도

2008년 3월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환경부-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간 ‘환경교육시범도’ 조성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여 왔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되어 도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초·중등학교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친환경농업시범도

2008년 4월 제5차 세계작물학대회⁶⁾ 개막일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친환경농업시범도’를 추진하는 비전과 계획을 선포하였다. 이를 통하여 웰빙시대 최고의 친환경농업 실현으로 도 전역을 청정농산물 생산기지화 하며, 2012년까지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60% 절감, 제초제 사용량 50% 감축 등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여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한국형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⁷⁾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스마트그리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제주 실증단지 구축이 착수되었고, 2010년 1월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이 수립되었다. 2010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로 지능형 전력망, 소비자, 운송, 신재생, 전력서비스의 5개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중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로드맵의 5개 분야 사업을 시범적으로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다.

6) 세계작물학대회는 4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적 규모의 작물관련 행사로서, 작물, 농업 활동 전반에 걸친 국제적 상호이해 증진과 협력, 조사, 연구 개발을 진흥시키고자 1992년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창립된 세계작물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Crop Science)가 주관하여 세계 각국 작물관련 농업과학자 대표들이 모여 연구결과를 토론하는 4년 마다 개최하는 작물과학 올림픽 대회임. 제5차 세계작물학대회는 2008년 4월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2,000여명이 참가하였음.

정부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인 2012년 이후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 세계환경수도(2010)

2009년 말 제5차 WCC 총회(2012) 유치를 계기로 지구촌의 환경보전을 선도하는 모범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다짐에서 시작되었다. 단기적으로는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장기적으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자산의 가치가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 미래 세대의 환경을 배려하는 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서 환경에 관해서는 가장 선진적이며, 모범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세계적인 환경 이미지 제고로 새로운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2010. 12)하였다.

2. 제주의 환경브랜드 추진 실태

제주지역의 환경브랜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과 관련된 브랜드별 평가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환경관련 브랜드가 지니고 있는 특성들의 계획체계나 관련 부서간의 협력 체계 등을 검토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개별 브랜드를 얻기까지의 노력에 비해, 브랜드를 얻고 난 이후, 이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브랜드의 추진 성과에 대해 공식적, 정기적인 성과 발표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부터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브랜드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당초의 취지는 무색해져 버리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정책우선 순위에서 뒤처지거나 기억 속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져 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환경관련 브랜드는 브랜드의 특성상 단위 부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이 성공여부를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 브랜드를 발표하는 시행 초기에는 T/F 팀을 구성하거나 추진단 등을 구성하여 관련부서의 참여를 촉진하지만, 고유의 자기부서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채 지표관리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환경관련브랜드가 상호 위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음으로써 중복하여 추

7) 엄상근, 2011. 3. 똑똑한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Smart Grid Dity) 지정을 위한 제주의 대응전략, JDI FOCUS 112호, 제주발전연구원.

진하는 등의 문제 외에도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 및 실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제시되고 있는 환경관련브랜드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재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브랜드를 각각 관리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제주가 보유하고 있는 환경관련 브랜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세계환경수도 조성이라는 큰 틀을 설정한 후 다른 비전들을 하위 범주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제주발전의 대표 브랜드로 설정할 경우 기존의 비전(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평화의 섬 등)들과의 관련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세계환경수도 조성은 용어 자체가 갖는 의미 등을 고려할 때 국제적 인증이 중요한 관건이므로 2012년에 개최되는 WCC 총회를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 WCC 총회와 세계환경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환경수도 조성관련 추진 실태를 보면, 주무부서인 청정환경국 환경자산보전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세계환경수도 조성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에 비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세계환경수도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제주는 세계환경수도로써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하므로 환경수도 조성계획이 도민의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도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수도, 도민들이 먼저 느낄 수 있는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의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과의 연계, 국제사회의 인정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모든 요소를 아우르는 새로운 전기 마련이 필요한데, 가장 적합한 기회가 2012년에 개최되는 WCC 총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던 세계환경수도 조성 계획을 WCC 총회와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⁸⁾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환경수도 조성 프로그

램이 총회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준비 사항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환경 의식 등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통합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WCC 총회 개막일 이전까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하고 있는 세계환경수도와 관련된 내용이 WCC 총회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다음의 사항들을 점검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등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제주의 세계환경수도 조성 프로그램 및 추진성과 등을 총회 참가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이었으나, WCC 총회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환경부, IUCN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도민의 관심도와 추진의지는 총회 의제로 채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민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도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를 들면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도민참가율을 비롯하여 녹색소비 실천 비율, 쓰레기 분리체계, 음식물종량제 참여율 등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성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WCC 개최 기간 동안에 있을 현장 답사 프로그램(WCC 스토리텔링 및 모바일 서비스 등) 등 회의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회의장 준비 등이 환경친화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WCC 총회가 개최되는 ICC JEJU 빌딩이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와 같은 친환경 건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 WCC 총회 개최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WCC 총회의 회의 진행프로그램과 제주의 세계환경수도 조성계획을 유기적으

8) 제주특별자치도 WCC 추진기획단에서는 WCC 총회에서 세계환경수도 조성 프로그램과 제주를 세계환경수도 모델로 추진하는 방안이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로 연계함으로써 제주의 친환경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환경수도 조성 프로그램을 의제로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세계환경수도 모델 정립과 관련하여 IUCN의 역할, 중앙정부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WCC가 공인하는 최초의 세계환경수도 1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제주지역 친환경농수축산물 및 식품의 전시 및 시식코너 등을 운영함으로써 세계환경수도 조성 이미지와 제주의 이미지를 일체화 시키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WCC 총회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세계환경수도와 관련된 일련의 상황들이 진행될 경우, 2012년 WCC 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환경수도는 WCC 총회의 결의에 따라 IUCN의 공식프로그램으로 인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IUCN 공식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을 제6차 WCC 총회에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제7차 총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며 대한민국 정부를 이를 보장하도록 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WCC 총회에서 채택된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환경조성 계획을 재구성하고, 구체적인 전략 마련과 함께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III. WCC 총회와 녹색산업 발전 방향

1. 녹색산업의 개념과 목표

녹색산업¹⁰⁾이란 기존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되 이를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 재구축하여 자연친화적 체제를 갖춘 산업을 의미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용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키워드(key word)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탄소중립도시(carbon free island), 친환경 1차 산업, 치유·생태·MICE 관광, 녹색경영·녹색환경·환경비즈니스 등이다.

9) US Green Building Council이 제정한 친환경 건물 인증 시스템

2. WCC 총회와 제주의 녹색산업 발전 방향: WCC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이나 녹색산업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한 뿐만 아니라 2012년 WCC 총회 개최이전에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본 고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WCC 범도민지원위원회의 12개 분과중 녹색경제분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지역 친환경상품 개발 및 투자유치 홍보’를 비롯하여 2012 WCC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녹색경제분과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따라서 WCC 범도민지원위원회 녹색경제분과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WCC 총회를 제주지역의 녹색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추진이 미흡할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추진실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한 현장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앞서 제주지역에서 거론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key word와 관련된 다음의 프로그램 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WCC 추진 지원단과 함께 준비해야 한다.

10) 녹색산업의 종류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되지만, 제주지역에서 산업화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 저탄소 배출 관련 산업: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연료 자동차, 대형화물차용 보조발전기관련 산업 등
- 신·재생에너지산업(에너지 절감사업 포함): 태양광산업, 해상풍력산업, 축산 폐기물 등을 이용한 연료산업, 스마트그리드, LED(발광다이오드)조명 산업, 고효율 유리창관련 산업 등
- 친환경부품소재산업: 광기술 기반 융합부품소재 산업, 친환경 자동차/전자/기계 부품소재 산업, 항공기의 경량화 및 풍력발전용 블레이드 관련 소재 산업 등
- 녹색서비스산업: 녹색관광, 친환경 지식서비스산업(컨설팅이나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관련산업, 친환경 혹은 환경 관련 교육서비스 산업), 고효율 저탄소 산업시설 설계 및 운영 컨설팅 등
- 자원재활용 관련 산업 - 플라스틱이나 비닐 등에 대한 자원 재활용 기술이나 서비스 관련 산업 등
- 자연친화산업: 녹지 등 탄소흡수원 확충, 물, 바람 등의 자연순환시스템 유지

〈표 1〉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key word별 준비 프로그램

제주지역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key word	녹색경제분과위원회 준비 사항 또는 프로그램	비고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¹⁾ 및 향후 계획 · 풍력발전단지 현장,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 · 전기자동차 시범운영	현장탐방 프로그램 또는 관련 계획
Carbon Free Island	· 가파도 현장 탐방 프로그램 및 관련 계획 리플릿	
친환경 1차산업	· 향토 음식 축제 개최 · 제주산 친환경농수축산물 및 관련 식품 전시관 운영	친환경제품 수출기회로 활용
치유·생태·MICE 관광	· WCC 스토리텔링 및 모바일 웹 서비스	생태관광분과위원회와 공동 추진
	· 치유프로그램: 워터테라피 등	
	· MICE 관광: 현장에서 최상의 서비스로 최고의 만족도 달성	
녹색경영·녹색환경 환경비즈니스	· 녹색소비생활 실천 운동 전개 · 환경의식과 친환경적 생활 · 친환경호텔 서비스 기준 마련 및 제공	클린제주분과위원회와 공동 추진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주가 생태관광 및 마이스산업의 최적지임을 각인할 수 있도록 통합적 차원의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관련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셋째,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한국의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단은 긍정적·부정적 이미지가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식당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 등을 고려할 경우,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하는 제주지역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원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문식단체 등을 통해 잔반으로 처리되는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음식문화 개선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WCC 총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제주특별자치도를 제2의 고향과 같은 개념이 ‘환

1) 예를 들면, WCC 총회가 개최되는 ICC JEJU 근처의 1개 마을을 스마트 그리드 서비스 모델 지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지역 기업의 test bed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경의 고향(environmental hometown)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의 환경인증제 도입(예, ICC JEJU의 친환경건물 인증, 호텔 등 친환경 호텔 서비스 프로그램¹²⁾ 운영), 생태탐방 코스의 스토리텔링 및 웹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 Hardwre, Software, Wetware 등 전 부문에 대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한다.

다섯째, WCC 참가자에 대한 제주도민의 환대의식은 제주의 정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도민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축제 등이 함께 개최된다면 제주의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제주도민 모두가 제주의 모습을 함께 가꾸고, 함께 알리는 노력을 함께 전개하려는 성숙된 도민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 2009. 1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2010. 12
신동일, 유네스코 3관왕의 의미와 향후 과제, JDI FOCUS 106호, 2010. 11, 제주발전연구원
엄상근, 똑똑한 전력망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Smart Grid Dity) 지정을 위한 제주의 대응전략, JDI FOCUS 112호, 2011. 3, 제주발전연구원.

12) 친환경호텔서비스에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숙박요금이 100,000원인 경우, 객실 이용자가 투숙하는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량이나 물사용량보다 일정 기준 이상 절약시 금전적으로 돌려주는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운영하는 등 호텔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